

2023년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3. 28. TUE.

—
5. 28. SUN.

국립태권도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Paintings about Meditation and Mindfulness:
A Special Exhibition on the Four Gentlemen
After Winter, Spring

마음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전

겨울 지나 — 봄

국립태권도박물관

TPF 태권도진흥재단

재정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개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선비들이 즐겨 그린 매화, 난, 국화, 대나무 그림을 주제로 마음 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전 《겨울 지나, 봄》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비는 학문의 정진과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평생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였고,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 도덕적 인간상을 그리며 마음과 정신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피고, 지는 식물 가운데 매화^梅, 난^蘭, 국화^菊, 대나무^竹 각 식물만이 가진 특유의 장점은 옛 선인들로부터 덕행과 학식을 갖춘 군자의 인품에 비유되어 왔었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맑은 청렴의 품격을 지니고 피는 꽃이며, 난은 보는 이 없이 깨끗한 의지로 피워 내는 선비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국화는 늦가을 추위에도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아름답게 만개하는 꽃을 피우고, 곧게 뻗은 대나무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푸르른 자태에서 강직한 충심, 절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비들은 사군자 그림을 통해 군자의 인간상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울로서 늘 곁에 두어 학식과 소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선비가 지키고자 한 본분과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군자’ 그림을 통해 선비의 정신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Paintings about Meditation and Mindfulness:
A Special Exhibition on the Four Gentlemen

After Winter, Spring



바람 부는 대나무 숲 | 박정선 작가

전시구성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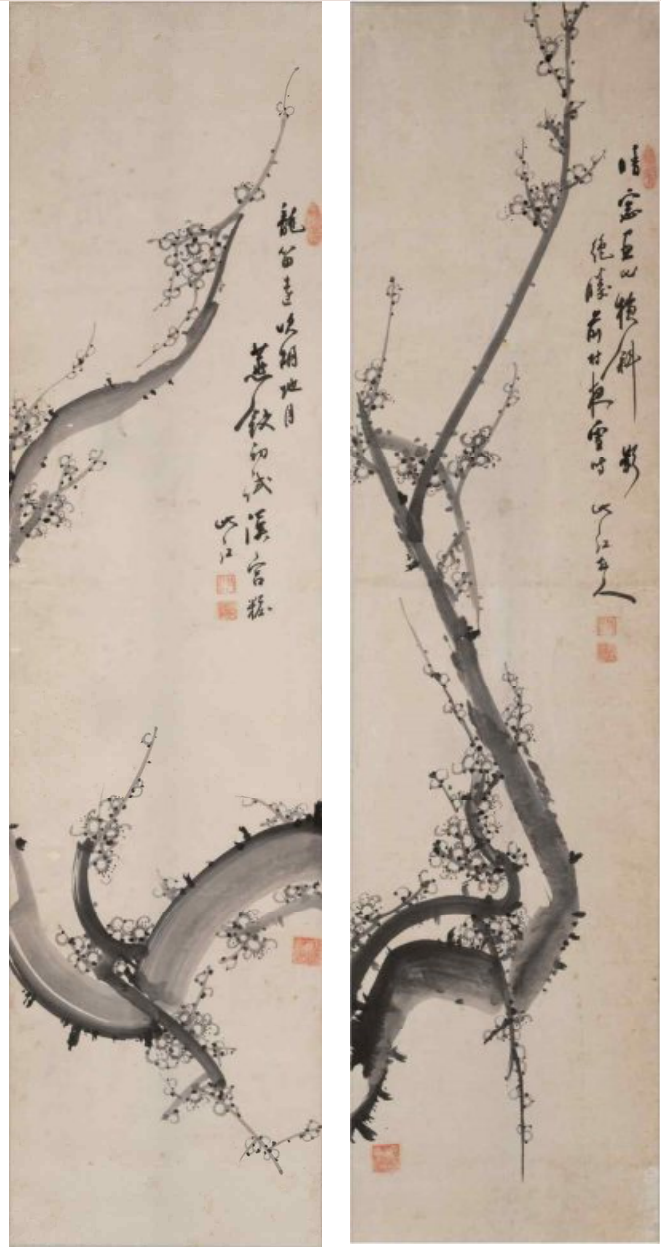
- 1장 선비의 이상을 담은 사군자
- 2장 매화, 난, 국화, 대나무
- 3장 조선, 사군자에 취하다.
- 4장 도자기 속 사군자

2부 겨울 지나, 봄이 오네.

- 1장 겨울 한 가운데 푸른 기상 _ 대나무 | 竹
- 2장 이름 봄, 꽃을 피우다. _ 매화 | 梅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묵매도 墨梅圖

차강 박기정 此江 朴基正
1874 ~ 1949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1장 | 선비의 이상을 담은 사군자

인간은 대자연의 섭리로부터 자아 성찰을 갈구하였고, 나아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교를 근간으로한 성리학이 태동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대부는 주변의 산과 계곡, 꽃과 새 등 자연물을 문화예술의 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문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의 문인화는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시와 서예를 더하여 문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문인의 높은 학문과 품격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매화梅, 난蘭, 국화菊, 대나무竹의 화제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시가와 산문에서 도덕적 행실과 학식이 높은 네 명의 군자君子에 비유되어 사군자四君子로 불리었다.

조선 사대부들은 사군자를 통해 도덕을 겸비한 이상적 인간상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으며, 늘 옆에 두어 학문적 교양을 갈고 닦고자 하였다. 더구나 시서화詩書畫 일치를 강조한 사군자는 그린 이와 보는 이로 하여금 높은 학식과 소양이 요구되기에 문인들은 평생을 다하여 사군자의 같고 닦음을 일상의 생활 태도로 여겼다.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고비유소

매듭장 전승교육사 박선경
2018년
국립무형유산원



경상
經床

소목장 전승교육사 김금철
2018년
국립무형유산원



붓걸이

조선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자료



사층책장

소목장 전승교육사 조희신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경상
經床

조선
국립전주박물관



붓

만해기념관



합죽선
合竹扇

선자장 이수자 김대성
2020년
국립무형유산원



백동 사군자 당초문 문갑

두석장 보유자 박문열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매화문양 비루

만해기념관



책궤형 협담

소목장 이수자 박성숙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사방탁자

소목장 이수자 김태훈
2018년
국립무형유산원



논어집주대전

論語集註大全

국립전주박물관



연상
硯床

소목장 이수자 김영환
2019년
국립무형유산원



맹주집주대전

孟子集註大全

국립전주박물관



백자청화 매화무늬 병

白磁靑畫梅文瓶

경기도무형문화재 안동호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 原士者° 生人之本也° 其爵則天子也° 其身則士也° 故爵有高下° 身非變化也° 位有貴賤° 士非轉徙也° 故爵位加於士° 非士遷而爵位也° 大夫曰士大夫° 尊之也° 君子曰士君子° 賢之也° 軍卒曰士° 衆之也° 所以明人人而士也° 執法曰士° 獨之也° 所以示公於天下也° ...

燕巖 朴趾源『燕巖集』第十卷 別集 罨畫溪蒐逸雜著 原士

... 원래 선비라는 것은 생민의 근본을 두고 한 말이다. 그의 작위는 천자이지만 그의 신원은 선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되 신원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지위에는 귀천이 있으되 선비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작위가 선비에게 더해지는 것이지, 선비가 변화하여 어떤 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를 '사대부'라 하는 것은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요, 군자를 '사군자'라 하는 것은 어질게 여겨서 부르는 이름이다. 또 군졸을 '사'라 하는 것은 많음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사람마다 사라는 점을 밝힌 것이요, 법을 집행하는 옥관을 '사'라 하는 것은 홀로임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천하에 공정함을 보인다는 뜻이다. ...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¹⁷³⁷⁻¹⁸⁰⁵ 『연암집』 제10권 별집 엄화계수일 잡저 원사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此是幽貞一種華
不求聞達只煙霞
採樵或恐通來徑
更寫山一片遮途
三角山人 海嵐 金奎嶽

이는 그윽하고 곧은 하나의 꽃이니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고
다만 안개와 노을 속에 있네
나무꾼이 혹여나 지름길로 올까 두려워
산 하나 그려 한 편 길을 막노라
삼각산인 해강 김규진

묵란도 墨蘭圖

해강 김규진 海嵐 金奎嶽
1864 ~ 1933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2장 | 매화 梅, 난 蘭, 국화 菊, 대나무 竹

조선의 사대부들은 화면 속 매화, 난, 국화, 대나무의 특성과 장점을 군자의 인품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매화는 이른 봄에 맑은 청렴의 품격을 지니고 피어나는 꽃이며, 난은 깊은 숲에서 사람이 없어도 꽃을 피우기에 깨끗한 의지로 자신의 도리를 다한다하여 선비들이 선호하는 식물이다. 국화는 늦가을에 추위를 이겨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충신의 덕목으로 여겼다. 대나무는 수많은 시와 글에서 군자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전해졌으며, 곧게 뻗은 대나무 줄기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푸르른 자태는 불굴의 정신과 충심, 강직한 절개를 상징한다.

먹의 농담과 번짐, 선과 여백을 중시한 사군자 그림은 묵죽 墨竹, 묵매 墨梅, 묵난 墨蘭, 묵국 墨菊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일찍이 문인에게 사랑받은 화제는 대나무, 매화, 난이며, 국화는 문인화 화제로 발달 시기가 늦어 단일 화제보다 죽과 바위 등과 함께 그려졌다.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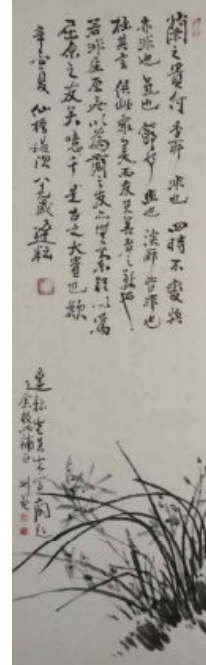
묵매도
墨梅圖

석연 이공우 石蓮 李公愚
1805 ~ 1877
19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금석 김진만 肯石 金鎮萬
1876 ~ 1934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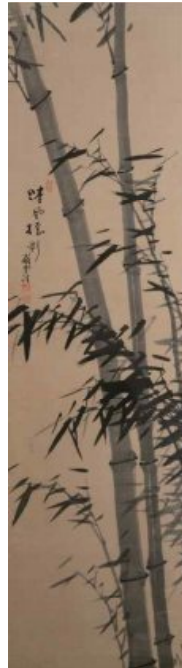
묵란도
墨蘭圖

지운 김철수 芝雲 金鋈洙
1876 ~ 1934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석국도
石菊圖

석정 이정직 石亭 李定稷
1841 ~ 1910
19세기 ~ 20세기
국립전주박물관



묵죽도
墨竹圖

휴당 이계호 休堂 李繼祐
1574 ~ 1645 이후
16세기 ~ 17세기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해강 김규진 海崗 金奎鎭
1864 ~ 1933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3장 | 조선, 사군자에 취하다.

문인화로 사군자가 그려진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며, 중국^{송·원}대과의 교류로 사대부 사이에 묵죽, 묵매, 묵란이 그려졌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 초기는 고려시대부터 계승된 사군자 그림이 조선의 사대부를 통해 그려졌으며, 특히 묵죽은 화원 선발의 일등급 주제로 선정할 만큼 왕실과 사대부에서 중요시 여긴 화제였다. 조선 중기는 전란의 시기를 극복하고자하는 마음이 사군자를 통해 표출되는 시기로 조선의 사군자가 확립하게 된다.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로 탄은 이정과 설곡 어몽룡 등이 있다. 조선 후기는 수묵 위주의 남종문인화풍이 유행하고, 서화일치^{書畫一致} 정신이 깃든 사군자가 유행하였다. 또한 매난국죽을 함께 묶어 '사군자'란 명칭을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로 수운 유덕장, 표암 강세황, 자하 신위, 수월 임희지 등이 있다.

조선 말기는 추사 김정희를 따르는 서화가들로부터 사군자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석파 이하응, 우봉 조희룡, 소치 허련, 고람 전기 등이 있다. 이후 조선왕조의 몰락, 문호의 개방, 일본의 식민통치와 항일투쟁 등 혼돈 속에서 근대화 미술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근대의 서화가들은 고단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전통회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묵매도
墨梅圖

매산 황영두 梅汕 黃永斗
1881 ~ 1957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미산 황용하 美山 黃庸河
1899 ~ ?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송은 이병직 松隱 李秉直
1896 ~ 1973
20세기
만해기념관



석국도
石菊圖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고암 이응노 顧菴 李應魯
1904 ~ 1989
20세기
만해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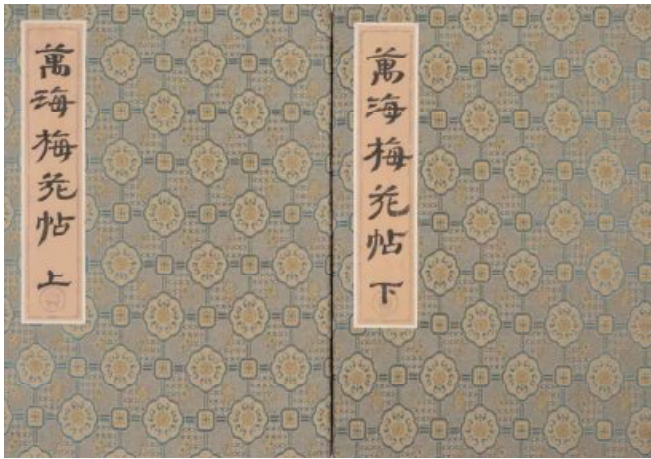


묵죽도
墨竹圖

일주 김진우 一州 金振宇
1883 ~ 1950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만해매화첩 상·하
萬海梅花帖

만해 한용운 萬海 韓龍雲
1879 ~ 1944

만해기념관



목란도
墨蘭圖

죽사 김현근 竹史 金賢根
1801 ~ 1868
19세기
만해기념관



목란도
墨蘭圖

춘주 이상홍 春州 李尙弘
1559 ~ 1596
16세기
만해기념관



목란도
墨蘭圖

석초 정안복 石蕉 鄭顔復
1833 ~ ?
19세기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묵란도
墨蘭圖

석하 윤영삼 石下 尹永三
1809 ~ ?
19세기
만해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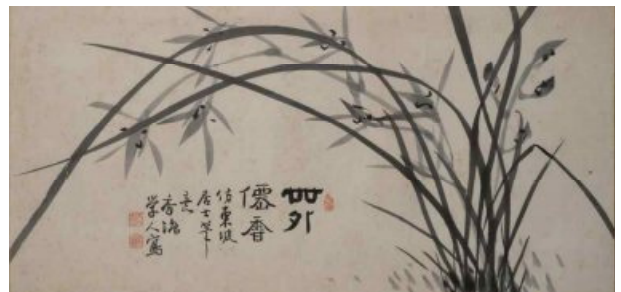
묵란도
墨蘭圖

정재 오일영 靜齋 吳一英
1890 ~ 1960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1891 ~ 1976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향당 백윤문 香塘 白潤文
1906 ~ 1979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고람 전기 古藍 田琦
1825 ~ 1854
19세기
만해기념관



묵란도
墨蘭圖

석촌 윤용구 石村 尹用求
1853 ~ 1939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청화백자난초문연적

靑畫白磁蘭草文硯滴

조선
경기도박물관

4장 | 도자기 속 사군자

배움이 깊고, 행실이 어진 군자는 조선시대 문인에게 이상적이 인간상이다. 군자를 상징하는 사군자는 문인들이 늘 옆에 두어 마음으로나마 군자의 모습을 되새기고자 백자에 담아 감상하였다.

도자기에서 사군자 문양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의 상감청자이나 화려하게 꽃 피운 시기는 조선의 청화백자이다. 청화백자의 사군자 문양은 고려시대 청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교함과 예술성 등 기술적 완성도에서 높은 기량과 품격을 보여준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왕실 소유의 가마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고, 전문 화원의 손 끝에서 사군자 문양이 백자 표면에 꽃 피웠다. 청화백자는 검소함과 절제를 강조하던 문인들의 선호에 따라 간결한 그림체와 여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군자 문양 중 매화와 대나무는 조선 전기부터 왕실과 문인들이 사랑했던 화제이다. 백자 화면에 나뭇가지 한두 개만을 뽑아 올리는 구성과 대나무 잎과 마디의 표현, 매화 줄기와 가지, 꽃잎의 묘사는 얇은 담묵과 짙은 점으로 표현하였다.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청화백자장생문병
靑華白磁長生文瓶

조선
국립진주박물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① 청자상감국화문대접

靑磁象嵌菊花文大碟

고려
국립진주박물관

② 청자상감국화문표형주자

靑磁象嵌菊花文瓢形注子

고려
국립진주박물관

③ 청자상감국화문병

靑磁象嵌菊花文瓶

고려
국립진주박물관

④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磁象嵌菊花文碟匙

고려
국립진주박물관

⑤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磁象嵌菊花文碟匙

고려
국립진주박물관

1부 마음 수련의 화제_사군자

Part 1
Paintings for Meditation and Mindfulness
The Four Gentlemen



④ 청화백자장생분병
靑華白磁長生文瓶

조선
국립진주박물관

③ 청화백자난국문항아리
靑華白磁蘭菊文壺

조선
국립진주박물관

② 청화백자국란초문호
靑華白磁菊蘭草文壺

조선
국립진주박물관

① 청화백자국화문항아리
靑華白磁菊花文壺

조선
경기도박물관

⑤ 청화백자매조문병
靑華白磁梅鳥文瓶

조선
국립진주박물관

⑥ 청화백자난초문연적
靑華白磁蘭草文硯滴

조선
경기도박물관

⑦ 청화백자국화문육각연적
靑華白磁菊花文六角硯滴

조선
경기도박물관



1장 | 겨울 한 가운데 푸른 기상 - 대나무^竹

흔들흔들 외로이 난 대나무. 산중의 눈밭에서 홀로 서있네. 裊裊孤生竹 獨立山中雪

해강 김규진 《죽석도》 10폭 병풍 중 「당대 시인 교연의 한죽^{寒竹}」

대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적인 군자의 상징, 국가에 목숨을 바쳐 싸운 인물, 묵묵히 학문에 열중한 은둔의 선비, 충성스런 신하 등으로 비유되어 그려졌다. 이외에도 대나무와 함께 소나무, 매화를 조합하여 세한삼우^{歲寒三友}라 하였고, 매화와 짝이 되어 이아^{二雅}, 쌍청^{雙淸} 등으로 불리며 문인들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대나무를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대나무 잎이 길고, 큰 데 비하여 줄기가 가늘다. 조선 중기는 조선 초기 대나무 외형과 비슷하나 잎의 마무리는 날카롭게 빼어 냈으며, 뒤쪽 대나무를 은은하게 앞쪽 대나무를 진하게 표현하여 화면의 공간감을 주었다. 조선 후기는 대나무 잎을 중첩하여 비교적 촘촘하게 표현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대나무 줄기가 두꺼운 통죽의 표현과 속도감 있는 잎 표현이 특징이다.

대나무를 그리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화풍이 존재한다. 막자라나 돌아나기 시작하는 순죽^{筍竹}, 봄철에 새로이 난 신죽^{新竹}, 왕죽을 그린 통죽^{筒竹}, 이슬 맞은 노죽^{露竹}, 비 맞은 우죽^{雨竹}, 눈 맞은 설죽^{雪竹}, 바람을 맞은 풍죽^{風竹}, 말라가는 고죽^{枯竹}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묵죽도 10폭 병풍 墨竹圖 十幅 屏風

염재 송태희 念齋 宋泰會
 1872 ~ 1941
 19세기 ~ 20세기
 국립전주박물관

2부
 겨울 지나, 봄이 오네.
 Part 2
 After Winter Comes Spring

2부

겨울 지나, 봄이 오네.

Part 2

After Winter Comes Spring



묵죽도
墨竹圖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教
1832 ~ 1914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유하 류영완 柳下 柳永完
1892 ~ 1953
20세기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두산 정술원 斗山 鄭述源
1885 ~ 1955
20세기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백수 김기중 白水 金基中
만해기념관

2부 겨울 지나, 봄이 오네.

Part 2 After Winter Comes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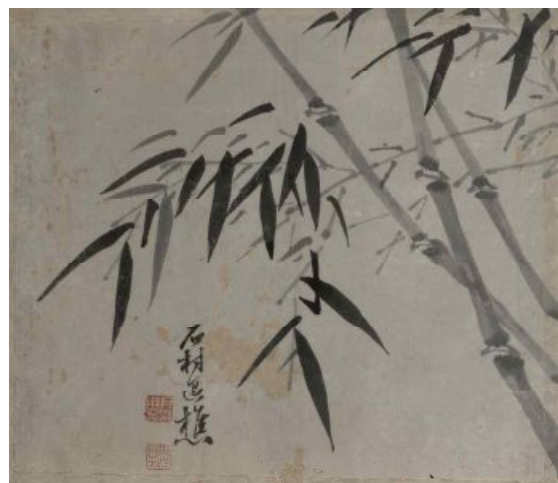
석죽도
石竹圖

송은 이병직 松隱 李秉直
1896 ~ 1873
20세기
만해기념관



석죽도
石竹圖

석연 양기훈 石然 楊基薰
1843 ~ 1919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묵죽도
墨竹圖

석촌 윤용구 石村 尹用求
1853 ~ 1939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매화도 8곡 병풍 墨梅圖屏風

매산 황영두 梅山 黃永斗
1881 ~ 1957
20세기
만해기념관

2장 | 이른 봄, 꽃을 피우다. - 매화^梅

날이 저물게 봄을 찾아도 봄을 보지 못하고, 終日尋春不見春 짚신 신고 고갯마루 구름만 밟고 다녔네. 芒鞋踏破巖頭雲

돌아와 웃고 있자니 매화향이 풍겨오고, 歸來笑撚梅花嗅 봄은 이미 가지 끝에 가득하네. 春在枝頭已十分

설곡 어몽룡 《묵매도》 중 「원대 여승 매화니의 영매화^{咏梅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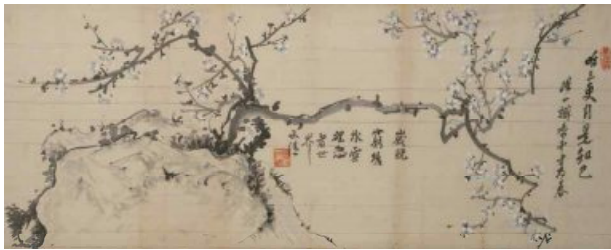
매화는 겨울 끝자락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하여 굽히지 않는 굳건한 마음,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깨끗한 의지와 태도를 상징한다. 나아가 문인들은 매화를 통해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곤 하였다.

묵매화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매화는 줄기와 잔가지, 꽃과 꽃봉오리를 그린다. 구도로는 매화의 줄기가 화면의 아래에서 위로 뻗쳐 올라가거나, 화면의 좌·우 모서리 부분에서 뻗치듯 사선으로 그리는 표현이 많다. 한국 묵매화의 공통된 특징은 매화의 꽃송이가 화면을 꽉 채우거나, 꽃잎에 집중하지 않는다. 문인들은 여백을 통해 매화 그림의 구도적인 완성미에 집중하였다. 매화가 가진 군자의 정신에 비취볼 때 화려한 기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매화를 그리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화풍이 존재한다. 연륜이 다한 노매^{老梅}, 달에 비친 월매^{月梅}, 눈 쌓인 설매^{雪梅}, 들에 자란 야매^{野梅}, 마당에 핀 정매^{庭梅}, 안개에 가린 연매^{煙梅} 등 다양하다.

2부 겨울 지나, 봄이 오네.

Part 2 After Winter Comes Spring



묵매도
墨梅圖

우청 황성화 又淸 黃成河
1891 ~ 1965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매도
墨梅圖

화산 김일 華山 金鎰
? ~ 1925
19세기 ~ 20세기
만해기념관



묵매도
墨梅圖

하산 유치봉 霞山 俞致鳳
1826 ~ 미상
19세기
만해기념관



묵매도
墨梅圖

자하 신위 紫霞 申緯
1769 ~ 1847
18세기 ~ 19세기
만해기념관



묵매도
墨梅圖

학산 윤계홍 鶴山 尹濟弘
1764 ~ 1840 이후
18세기 ~ 19세기
만해기념관



묵매도
墨梅圖

석초 정안복 石蕉 鄭顔復
1833 ~ ?
19세기
만해기념관

마음 수련의 화제 사군자 기획전 겨울 지나, 봄

Paintings about Meditation and Mindfulness:
A Special Exhibition on the Four Gentlemen
After Winter, Spring

총괄 오응환
전시총괄 김태균
기획 이경원
원고 이경원
교정·교열 김균석, 강현선, 송봉수, 나승재
진행 이경원, 김균석, 강현선, 송봉수, 나승재
사진촬영 최지현 작가

원문번역

한국고전번역원

전시영상 및 콘텐츠

박정선 작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DIMA아트센터, 국립중앙박물관

자료대여

만해기념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경기도박물관

관람시간

화요일 ~ 금요일 10:00 ~ 18:00

박물관 입장은 관람 종료 30분전까지 가능합니다.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 1월1일, 설·추석 전일 및 당일

태권도진흥재단 www.tpf.or.kr

국립태권도박물관 museum.tpf.or.kr

태권도 라키미움(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유물 아카이브) archiveum.tpf.or.kr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